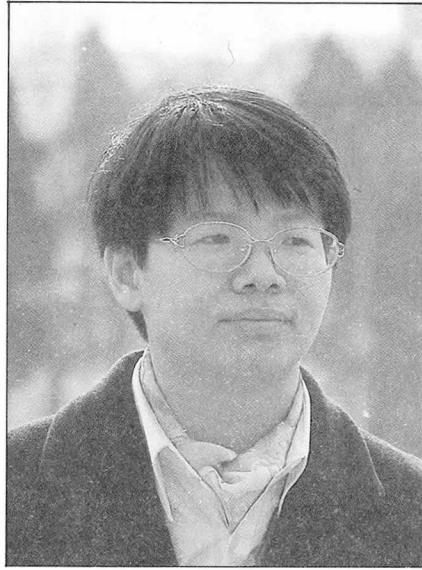


‘타고난 이야기꾼’의 육아일기

「색동저고리 입고…」 펴낸 백원담씨



“임신한 몸으로 겁도 없이 최루탄 가스 속으로 뛰어들다니…”

남대문에서 있었던 국민연합 주도의 반민자당 투쟁(90년 5월 9일) 시위에 참여했던 한 여자가 간신히 병원으로 들어서자 의사가 혀를 끝끝 차면서 하는 소리다.

그후 5년이 지나서야 백원담씨(38, 연세대 중문학 박사과정)는 그 북새통을 비집고 태어난 딸 ‘아름’에게 자신의 얘기를 여과없이 들려주기로 했다. 그의 90년대 삶의 고민이 진하게 묻어 있는 「색동저고리 입고 꼬가신 신고」(한울)를 통해서 말이다.

“훗날 딸아이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힘과 위안을 얻으라는 마음에서 썼지요.”

백씨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연대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90년부터 아름이가 세 돌이 될 때까지의 부대낌을 입심 좋게 기술한 이 책은 단순한 육아일기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버지 백기완씨가 16년 전 그에게 건네주었던 「자주그림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다시금 생각해 하기 때문이다. “답아, 답아, 딱 한눈에 사내녀석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자가 되거라”는 말을 듣고 자란 그가 이제 한 가정을 일구어 6살난 딸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한때 백씨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향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지금은 저처럼 생활인의 테두리에

들어섰겠지만 분명 많은 고민에 빠져있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자신을 되찾고 다잡는 데 ‘길찾기’가 됐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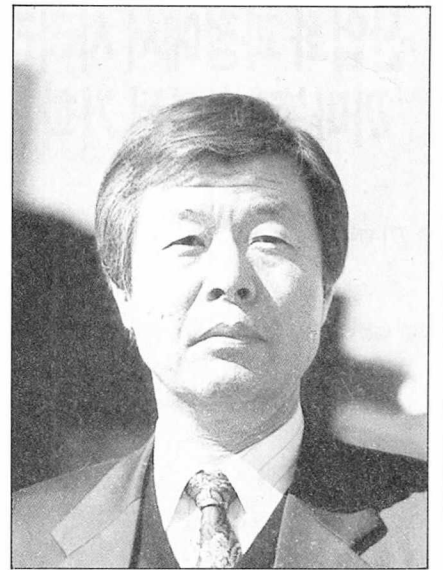
정작 아이를 키우면서 새내기 엄마들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백씨는 “육아문제를 전적으로 엄마의 능력에만 전담시키는 사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지만 대학원 공부에다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강의까지 겹쳐 있는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교육 원칙이나 방향을 잡아 나가려고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백씨가 말하는 교육은 유난스러운 게 아니다.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면서 남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아이”면 족하다고. 그러자면 시골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모두 경기도 화성군에 정착했다. 지금은 이 책의 주인공인 아름이 아래로 ‘하제’가 태어나 전부 네 식구다.

창작활동과 문학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백씨는 앞으로 ‘이야기꾼식 소설’을 쓸 계획이다. 대대로 이야기꾼의 내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라 그 역시 ‘타고난 이야기꾼’이 될 터이다.

—배은희 기자

알아두면 편리한 전통호칭법

「예절바른 우리말 호칭」 펴낸 이무영씨



갓 시집은 신부가 새신랑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누구한테서 온 전화냐고 묻는다. 남편, 신랑, 김서방… 머릿속에서 말만 빙빙 돈다. 아이만 있어도 ‘누구아빠’라고 하면 간단하면만, 그렇잖아도 시아버지가 어렵기만 한 새신부는 얼굴이 붉어진다.

이무영씨(54)가 이번에 펴낸 「예절바른 우리말 호칭」(여강출판사)을 보면 이럴 경우 새신부는 ‘그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또 친정 부모에게 남편을 호칭할 때에는 ‘김서방’이나 ‘그 사람’이 좋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칭예절 때문에 당황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면허시험 필기공부하는 데에는 며칠을 투자하면서 그 5분의 1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환하게 알 수 있는 일을 그때그때 넘어가는 풍조가 아쉽습니다.”

현재 대구 남덕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무영씨는 요즘은 국민학교의 학부형 세대들이 전통예절을 잘 배우지 못해 호칭에 혼란을 겪고 있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말한다. 비근한 예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호칭이라는 것은 지방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달라서 저마다 자신들이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최대공약수를 뽑아 정리한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부모 자식간의 호칭’ ‘남편과

아내의 호칭’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호칭’ ‘사돈끼리의 호칭’ 등 가족 사이의 호칭에서부터 ‘사회생활에서의 호칭’ ‘직장의 호칭’ 등에 이르기까지 장을 세세히 나누어 혼동되는 부분들을 제때제때 찾아 익힐 수 있게 했다. 또 국립국어연구원의 ‘화법표준화자문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화안」도 도표로 곁들여서 “전통호칭의 최대공약수”가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외국어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몰상식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우리 말은 대충 써도 된다는 사고는 고쳐져야 합니다.” 힘주어 이야기 하는 이무영씨의 말씨는 더 철저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예절바르다.

—한 강 기자

질병 치료의 비결, 바로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저자 김태정 박사는 16살 때 영양 실조, 황달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중 주변에 살던 촌부 한 분이 귀한 약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으로 완쾌되었다고 한다. 이후 젊은 시절 잠시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어릴 적 촌부가 처방한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 나서면서부터 야생 식물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본격적으로 야생 식물 연구와 탐사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최신 최고급 컬러판 • 야생식물 민간요법 총망라 호화 양장본 / 신국판 908쪽 / 특보급가 38,000 원

약이 되는 한국의 산야초

KBS-2TV 전국은 지금에 소개된 야생 식물학자 김태정 저

알기쉬운 가정한방 동의보감
송훈정박사 감수 / 값 10,000 원

동의한방 약차·약술
신준식(자생한의원)원장 감수 / 값 10,000 원

동의한방 보약
인기 프로 「MBC 라디오 동의보감」 출연
신재용(해성한의원)원장 저 / 값 10,000 원

국립문학과 국립미디어가 공동으로 발간한 민간요법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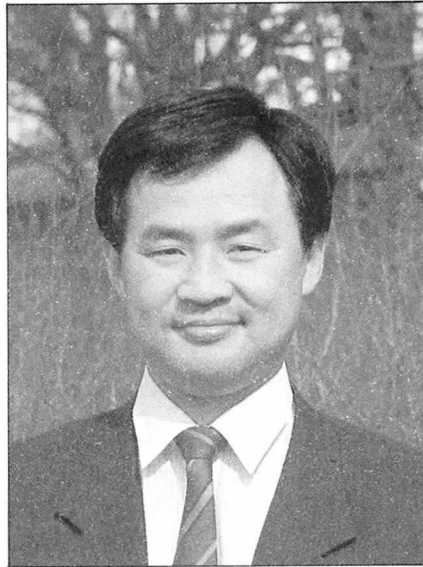
- 1 기적의 매실요법
松本紘齊 저 / 유준대 역 / 값 6,000 원
- 2 신비의 솔잎치료법
上原美鈴 저 / 유태중 감수 / 값 7,000 원
- 3 신비의 마늘요법
기준성 감수 / 값 7,000 원
- 4 이재희의 포도요법
이재희 저 / 값 8,000 원
- 5 몸에 좋은 산야초 치료법
송효정 편저 / 원색도감 / 값 18,000 원
- 6 신선초로 병을 고친 사람들
구경림 추천 / 값 7,000 원

- 7 일로 병을 고친 사람들
홍문화 감수 / 값 7,000 원
- 8 몸에 좋은 김지요법
인덕균 감수 / 값 6,000 원
- 9 약이 되는 한국의 산야초
김태정 저 / 원색도감 / 값 38,000 원
- 10 병을 물리치는 신비한 생야채 녹즙요법
기준성 감수 / 값 6,000 원

국립문학사 국립미디어
T. 237-4523 T. 253-5291

협객의 칼이 가리킨 중국역사

「협객의 칼끝에…」 펴낸
강효백씨



80년대 '협객의 시대'를 조명했던 '모래시계'라는 텔레비전 드라마 때문에 서울 밤거리는 고요했다. 엄밀히 말해 주인공 헤린은 '여왕벌'이었고, 태수는 '정치깡패'일 뿐이다.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에 근무하는 강효백씨(37)가 펴낸 「협객의 칼끝에 천하가 춤춘다」(한길사)도 어찌보면 '정치깡패' 혹은 테러리스트를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킨 책이다. 단지 그 무대가 중국이고, 다루어지는 인물 또한 장자에서 모택동까지 이른다는데 차이가 있다면 차이다.

하지만 "한제국을 형성한 유방이나, 거지에 탁발승이었던 백련교의 비밀결사에 가입해 명나라를 창건한 주원장, 가깝게는 대장정의 모택동·등소평이 모두 천하를 얻고 새 국가를 건설한 협객들"이라고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책 전반에 걸쳐 협객에 대한 예화를 비롯해서 각 시대의 사회상과 협객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깡패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한 시대를 품어준 영웅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강씨는 중국 협객의 근본정신을 용(龍)의 혁명성에서 찾아내는 동시에 중국의 정신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 협객의 칼이 가리킨 중국사이면서 중국문화사로도 읽힌다.

"뱀의 머리, 소의 얼굴, 매의 발톱 등으로 이루어진 용은 토탑의 연합체로서, 용의 원형은 뱀이다. 용은 또 생명을 분출하는 당당한 남근을 상징하며 검(儒士)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붓을 들고 있는 유사와 검으로 대표되는

협객이라는 두 기둥은 역할을 달리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강효백씨는 강조한다. 진시황제 이후 열번의 제정과 두번의 공화국, 세번의 분열기에 유사는 안정의 주체로, 협객은 변혁의 주체로 매 시기마다 중국의 역사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정통성은 내게 있다"는 믿음과 통일을 이루려는 용의 정신"으로 무장한 협객은 또 "중국을 중국답게 하는 힘의 주체"이기도 하다.

중국 협객의 정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효백씨는 유추한다. 그 예가 바로 백범,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이다. 특히 '원수를 원수로 갚는' 백범의 행동은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가사상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없었다. 이러한 궁극증 때문에 중국의 협객을 주유했다는 강효백씨는 바로 협객의 정신에서만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군사문화'의 정체는 무엇인가. 강효백씨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길 잃은 고구려 상무정신'일 뿐이다. '박태수'의 애절한 사랑만도 못한...

—이성수 기자

문명인에 대한 생태학자의 경고

「문명 앞에 숲이…」 펴낸
김준호씨



매일 지구상에서 생물 60종이 멸종되고 있다. 또 매년 한반도 면적만큼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파괴 속도가 계속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는 별거숭이가 될 것이다.

35년간 생태학 연구의 외길을 걸어온 김준호씨(65,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교수)는 이처럼 환경오염과 벌목 등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한숨만 푹푹 내신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봐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명'의 본질이 인간과 자연을 망치고 말 겁니다."

눈앞의 쾌적한 생활환경에만 급급해지는 문명인들의 근시안적인 자연보호가 생태계를 무참히 병들게 했다는 얘기가. 최근 출간한 자연칼럼집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웅진출판)에서도 김씨는 문명인의 이기를 타하면서 "이제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태윤리로 정립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충고한다.

생태학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 책은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의 특성 및 인간의 생활환경과 식물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생태학적으로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인간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식물에 대한 묘사에선 김씨의 탁월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다. 김씨는 전주에서 내륙지방에 자리잡은 사범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비로소 자연경관에 눈을 떴다. 우표딱지만한 식물도감을 뒤져 눈앞에 있는 식물의 이름을 외우기도 하면서 시작한 식물생태학 연구이지만 고생도 많이 했다.

기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러시아의 고산에서 고산식물을 관찰하다가 조난을 당하기도 했고, 아열대지방에선 뱀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숲속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에서 본 열대 원시림 벌목 작업은 이 원로 생태학자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고야 말았다.

"전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연파괴의 현장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깃발을 높이 치켜든 문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문명의 발자국 뒤로 남는 것은 오직 황량한 '사막' 뿐입니다."

며칠 전 정년퇴임했지만 여전히 생태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가 문명인들에게 전하고픈 말이다.

—배은희 기자

최신주식 투자 입문

주식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벌여 주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라도 두뇌의 3% 정도를
늘상 투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은 종목을 고르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엄주엽 저 / 값 8,000 원

국일 자산 증식의 길잡이

- 1 주식 투자의 비결
구영한 저 / 국일증권연구소 옮김 / 값 7,000 원
- 2 주식 소프트웨어
엄후권 · 김현 공저 / 값 7,000 원
- 3 주식을 사는 법 파는 법
이재형 편저 / 값 7,000 원
- 4 증권 교실 100문 100답
복영보 편저 / 값 7,000 원
- 5 증권 투자 길잡이
엄후권 저 / 값 7,000 원
- 6 증권 기사 읽는 법
국일증권연구소 편 / 값 5,000 원

- 7 주가와 경제
나기따 에이주 저 / 엄후권 옮김 / 값 6,000 원
- 8 알기쉬운 주식 명언 격언집
국일증권연구소 편 / 값 6,000 원
- 9 알기쉬운 주식 이야기 입문
구영한 저 / 값 7,000 원
- 10 주식 투자 노하우
엄후권 저 / 값 6,000 원
- 11 펀드 매니저의 주식 투자 전략
자문회사 펀드매니저 편 / 값 5,000 원
- 12 증권 투자 전략
전철 저 / 크라운판 2° 인쇄 / 값 12,000 원
- 13 알기쉬운 주가 차트 100% 활용법
엄후권 저 / 값 6,000 원

- 14 주가 차트 입문
국일증권연구소 편 / 값 6,000 원
- 15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
니콜라스 다비스 저 / 값 7,000 원
- 16 알기쉬운 주가 지수 선별 거래 입문
오시학 · 엄후권 공저 / 값 6,000 원
- 17 최신 주식 투자 입문
엄주엽 저 / 값 8,000 원

국일증권연구소
TEL. 237-6646/7 FAX. 237-4524